

##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

- 고상구 운영위원장 당선, '재외동포 주도 체제' 본격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3월 9일(월)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,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.
  - 이에 따라,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.
-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「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」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.
  -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·국가별·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-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“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,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포부를 밝혔다.
-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‘동포사회 주도 체제’의 시작을 의미한다.”며, “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.”라고 전했다.

□ 한편,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오는 9월 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 장 이정한 (032-585-3195)
		담당자	서기관 정다비 (032-585-3200)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	주무관 조성제 (032-585-3205)

